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1

2017. 7. 16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8-29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더 바이블
- 3 선교이야기
- 4 목회칼럼
- 5 신임 향존직 소개
- 6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7/20(목) 국내 해외 통일선교위원회
연합세미나
8/6(주일) 성찬주일

발행인 : 김성식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주님의교회



가뭄과 단비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늦은
장마가 적셔주는가 했더니 무더위
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대구 어디
에선가는 파초가 오랜만에 꽃을 피
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바나나가 열
렸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다. 아직
도 포항 인근에서는 가뭄이 계속
되어 저수율이 30%대로 떨어졌다
고 한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특히 가뭄
이 심했다. 이 지역은 5월에서부터
건조기가 시작되어 10월까지 이어
지는데, 큰 강이 아닌 지류와 들판
은 바짝 말라서 갈라지게 된다. 큰
강이 마르는 극단적인 가뭄도 드물
지 않았으며 메뚜기와 황충 같은 변
고도 발생해서 피해가 컸다.

성경에서 가뭄은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혹 내가
하늘을 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
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
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
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지라”(대하 7:1~14)는 말씀은 그 한
사례이다. 우상을 숭배한 때에도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
리리니”(렘 50:38)라고 하였고, 바
알을 섬기는 자에게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와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 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호 13:15)라고 경고
했다.

이 모든 구약 시대의 경고를 이 시
대의 자연 현상인 가뭄에 직접 연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
이 이런 경고를 통해 무엇을 말씀
하시려 했는가를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
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한편으로
바알 신을 숭배했다. ‘바알(Baal)’은
‘주(主)’라는 뜻이었으며, 비와 바람
과 폭풍의 신으로, 주로 농업과 유
목이 생업이었던 가나안 지역 사람
들은 바알을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고 믿었다. 즉,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즉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받고
싶다는 것을 뜻했다. 하나님이 경
고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물질을 바알 신처럼 섬기는 지금,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바알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
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
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
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를 위
하여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이 아니라 바알 신을 믿는 것이 된
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
다. 하지만 물질과 권력이 삶의 모
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
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큰 교회 건물에 대한 만족감, 넓은
주차장으로 인한 편리함, 사회
적 지위가 높은 교인들과 함께 한
다는 자존감으로만 교회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곳은
없다. 말씀의 가뭄이 심해질 때, 교
회는 영적 기근으로 바닥이 갈라지
고,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은 짝을 띄울 수가 없게 된다. “가난
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
씀은 그래서 영적 기근의 땅을 적시
는 꿀 같은 단비다.

함글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7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를 깨닫고, 보름스의회를 통해 당시 부패한 가톨릭교회와 국가로부터 대척점에 서게 된 루터는 이후로 많은 위협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527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있는 이탈리아를 침범하여 교황을 가두고 가톨릭



비텐베르크성 교회 첨탑

교회를 약탈하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카를 5세가 그 모든 책임을 루터교회에 전가하였다는 것이다. 카를 5세는 1529년 스페인에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루터교를 동조하던 독일의 제후들에게 가톨릭 예배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항의운동을 한 사람들을 신교도, 프로테스탄트(Protestant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루터와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은 오랜 싸움과 탄압에 지쳐서 실의에 차 있었다. 1529년 어느 날 깊은 고뇌에 빠져 있던 루터는 시편 46편을 폼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어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읽었던 루터는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확신을 얻어 시를 쓰고 독일민요풍으로 곡을 붙였다. 바로 이 찬양이 찬송가 585장(통384) ‘내 주는 강한 성이요(Ein

feste Burg ist unser Gott)’이다.(95개조 반박문을 붙여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린 비텐베르크성 교회 첨탑부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기록되어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종교적, 정치적으로 대변혁을 일으켰지만 음악사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분리되었고, 음악에서도 ‘코랄’(Chorale)이라는 루터파교회의 새로운 양식이 태어났다.

종교개혁 전까지 가톨릭교회에서 일반 신도들은 찬양대가 부르는 라틴어 다성 음악이나, 사제들이 부르는 라틴어 성가를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이었다. 루터는 교회 안의 회중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곡이 알기 쉽고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중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기 위해 라틴어 가사를 독일어로 번



루터의 코랄 찬송집 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악보

역하였고, 다성 음악을 단성으로 옮겼다. 이러한 노력으로 회중가로서 코랄(화성이 붙지 않고 반주도 없이 제창으로 부르는 단순한 리듬의 선율)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 음악을 사제 또는 찬양대 중심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회중음악으로 변화시켰고, 자국어로 코랄 찬송을 부르게 하여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박주영** 전도사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더 바이블 (The Bible) 4

4.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창조에서 예수님의 시대와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의 시대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시기라는 뚜렷한 시대적 구분을 형성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그 역사가 매우 길다. 구약성경의 역사적 시대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과 배열의 차이점, 성경의 시대를 구분했다면 성경을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내러티브이다

먼저 구약성경은 창조의 역사에서 마카비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긴 시간을 단순히 하나의 주제에 맞추어 읽기란 상당히 힘들다. 또한 각 시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은 각 시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성경에 나타난 시대적 해석학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설교자나 성경을 읽고자 하는 독자로 하여금 성경은 인사이트를 발견하도록 안내한다.¹⁾

또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전전승문화이다. 구전전승은 역사를 시간적으로 서술하는 특징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 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주제나 역사를 담고 있지 않다. 성경은 다양한 특징들을 함께 가지고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발견한 후 성경을 더 잘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서사비평, 역사비평, 문학비평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비평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학문적 접근이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이 일반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과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성경이 분석되고 찢겨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결과 성경은 더욱 이스라엘 문화의 특징과 그 당시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접근 방식이 도입되었다.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식 접근과 함께 은유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물에 대한 직접화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특징은 예언서에서 예언자의 아내가 죽는 것, 예언자가 옷을 벗는 행동, 예언자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식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러티

브와 은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성경은 내러티브이다.”라고 말한다.²⁾

이것은 읽는 독자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한 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은석 목사

1)성경의 인사이트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계시로 때론 삶에서 오는 인사이트를 발견함으로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했다.

2)내러티브는 이야기 또는 설화로 번역할 수 있다. 고든 D.피는 성경의 40%가 설화체이며, 성경의 가장 흔한 문학형태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이 히브리 문학을 가지고 있고 상당부분 설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는 히브리 설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Gordon D. Fee,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오광만역 1역,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 2014), 103.

청빙위원회 소식

청빙위원회 개편

제5대 담임목사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청빙위원회가 개편되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창안 장로가 6월 말로 임기를 마쳤고, 청빙위원이었던 고 박중규 장로의 소천으로 위원회의 개편이 요청되던 터였다. 7월 10일 정기 당회 보고에 의하면, 신임 청빙위원장은 장일형 장로가 맡게 되었고, 박중순 장로와 손천숙 장로가 청빙위원으로 위촉되었다.

7월 10일 현재 담임목사 청빙은 그동안의 과정을 거쳐 몇 분이 당회 보고를 위한 최종 면담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면담을 거쳐 후보자 2~3인이 추천순서에 따라 당

회에 보고되며, 당회에서는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1~2명을 선정,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주님의교회 공동체 전체의 의결을 받게 된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당되는 분들의 명단은 청빙위원회의 최종 면담과 당회 논의를 통해 공동의회에 최종 보고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함글함글

교회소식

장로 퇴임식



지난 6월 25일 창립29주년 행사로, 장로 퇴임식이 진행되었다.

이 날 재임기간 10년을 맞은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장로의 퇴임

을 맞아,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박수와 함께 꽃다발과 감사장, 선물을 증정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함글함글

선교 이야기 7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1)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세워져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세워지는 것은 엄청난 흥분되는 일이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아마도 긴 시간들과 고뇌, 열정, 헌신, 훈련, 재정, 중보, 후원자, 파송 교회, 파송 선교단체 등 일 것이다.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뛰어넘어 사역지로 간 선교사들이 불과 1기 사역도 못 마치고 실패와 좌절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이다.

선교는 사역지에 있는 선교사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우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방에서 기도, 재정, 동원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들이 선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잘 이해해야만 한다.

문화충격과 언어습득의 어려움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은 언어습득의 어려움과 문화적

충격일 것이다. 언어습득이 이루어지기 까지 거의 반병어리처럼 지내야 하고 아무리 사전에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겪는 문화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느 이슬람권에서는 이방인들의 물건 한 두 개씩 훔치는 것을 당연시해서 짐들을 잃어버려 분개했다는 선교사도 있었고 시간 개념이 없어서 약속한 시간에 자기 혼자만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선교사들도 흔하다. 언어를 습득해서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데 2-3년 이상이 걸리니 이른 시간 내에 사역의 열매를 보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고 선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안식년에 본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동안 발전된 모국의 모습과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에 오히려 역문화 충격을 받게 되어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부분 선교사들은 말한다.

자녀문제

선교사 자녀들도 선교사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느끼지만 그 충격은 훨씬 더 크다. 특히 교육문제는 더 힘들다. 국제학교에 보내자니 재정 부담이 크고 현지인 학

교에 보내자니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놀림을 받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이슬람 병원에서 선교사들을 납치해서 살해했던 일이 수 년 전에 있었다. 그 때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의 자녀에게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의 안부에 대해 묻자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른척했다고 한다. 그는 부모가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그 선교사의 자녀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선교사도 우리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자녀에 대한 소망은 우리와 동일하다. 선교사의 자녀는 자신들이 헌신해서 선교지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 친구와도 헤어지고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된 것이다. 그 충격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선교사 간의 갈등

사역지에 와서 시간이 지나 언어, 문화의 벽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게 되는데 파송한 교단, 교파가 다른 선교

사들끼리 특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끼리 갈등이 많이 생긴다. 언어가 다르면 선교사들끼리도 소통이 쉽지 않다. 사역의 패턴도 다를 것이다.

선교사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에는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자는 선교사들도 있고 현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교사들도 있다. 같은 나라 출신의 선교사 간에도 선의의 선교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오랫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역지의 경계 내로 다른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지역적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교단들이 서로 중첩되지 않게 역할분담을 하여 모범적으로 사역을 했던 반면 어느 국가에서는 선교사들이 밀집되며 갈등이 심화되어 고소, 고발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분과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소비하는 자

불현 듯 ‘교회는 소비의 주체인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소비를 한다는 것은 가치에 대한 지불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맘에 드는 물건을 사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건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물건에 대한 지불 가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것이다. 소비자는 이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할 수 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만 대가를 바랄 때는 수동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이러한 소비자들로 가득 차는 경우를 보게 된다. 즉 교회를 쇼핑하는 것이다. 편한 시설, 넓은 주차장, 시원한 에어컨, 깨끗한 음향을 보고 교회가 좋다 혹은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설교나 찬양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며 지적하는 것이다.

교회가 소비자처럼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일본은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는 신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고객은 왕이다.’라는 것과 ‘고객은 언제나 옳다.’라는 인식을 뛰어넘는 정신이다. 어

가 소비자로 변하면 두 가지 반응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

교회가 소비자로 가득차는 경우를 보게 된다. 즉, 교회를 쇼핑하는 것이다. 편한 시설, 넓은 주차장, 시원한 에어컨, 깨끗한 음향을 보고 교회가 좋다 혹은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설교나 찬양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며 지적하는 것이다. 교인이 스스로를 백화점의 VIP처럼 인식하는 순간, 교회의 본질, 곧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다.

졌든 소비하는 주체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가 높은 자임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전략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만약 교회

락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은 신, 또는 왕이기 때문에 신의 위치에 스스로 올라갈 것이란 추측이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 곧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다.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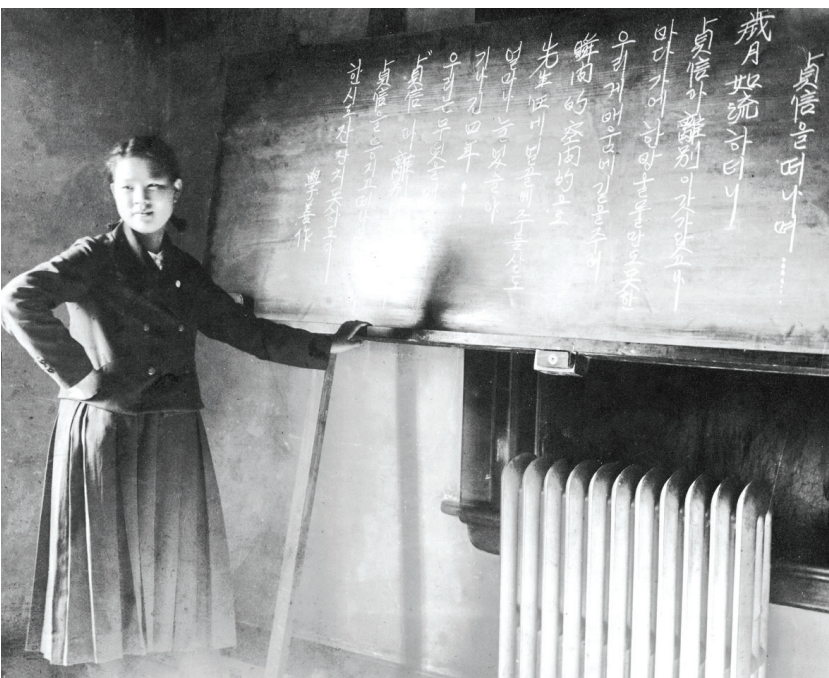
만 아니라 소비하는 주체가 곧 교회의 주인이라는 인식이다. 결국 모두가 마치 백화점의 VIP처럼 전략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당연히 교회의 본질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전략해 갈 위험 요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밑에서 끊임없는 자기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십자가를 붙잡고자 하는 애씀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은석 목사**

정신학원에 갇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44

해방 후 복교(2)



졸업을 앞두고 연지동 교사에서 - 1940년 졸업생

해방과 함께 정신여학교 복교를 위해 노력한 것은 정신여학교 동창회였다.

1946년 4월, 학교 복교를 위하여 정신여학교 동창회를 풍문고등여학교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5

월에는 새문안교회에서 동문회로 모여 학교 복교를 모색하였다.

9월 25일, 미군정 군정법령 제2호에 의해 일제가 몰수한 한국 내 미국의 재산에 대해 적산(敵産) 동결 조치를 취하므로 정신여학교를 강제 점령해 사용하던 성남중학교는 학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남중학교가 학교를 비우자,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정신여학교 교사를 사용했다.

1946년 중반에 들어서자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해있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일제 말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논란이 있었을 때, 조선인들에게 교육기관을 인계하여 지속하는 것에 많은 선교사가 이에 대한 열망을 무시한 것 등으로 귀환한 선교사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에게 학교를 인계하는

것에 노력했던 지역 노회가 한국인들의 학교 경영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은 ‘미래에 한국교회와 공식적인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한국교회와 교회 관련 기관들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해외선교부도 동의했다.¹⁾

선교부는 정신여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여학교 재건위원회의 학교 재건 운동에 학교부지의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²⁾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1) “Board Action of December 16, 1946,” J.L.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7년 3월 4일, RG 140-2-29 PCUSA, 2

2) “Board Action of December 16, 1946,” in J.L.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7년 3월 4일, RG 140-2-3 PCUSA, 2.

임직자 소개

주님께 헌신하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은 6월 25일 3부예배에서, 신임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37명의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항존직 선거에서 피택되어, 소정의 피택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 날 안수를 받았다. 앞으로 교회 안팎의 사역현장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신임 항존직을 소개한다. (가나다 순)

■ 장로



김익훈

■ 안수집사



강대수



고광중



구태호



김영화



김용철



김종식



박남현



박종욱



박형규



서용석



송수학



이명국



이성규



장근열



최봉수



한승수



한재희

■ 권사



강기선



김애리



김영주



김점심



박경희



박동선



배정선



서옥숙



설정희



소봉순



양정순



오현옥



유경희



이혜성



전영오



정란희



정선화



최성이



한경숙

사역팀 소식

늘푸른대학 1학기 종강



늘푸른대학에서는 7월 4일(화)에 1학기 방학을 하였다. 2017년 30번의 학사일정 중에 16번의 학사 일정을 마치고 9월 5일(화)에 2학기 개강을 한다. 모두 270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14개 특별활동 반으로 늘푸른대학이

하늘씨앗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주님의교회 하늘씨앗 영아부는 지난 7월 9일 주일에 1부와 2부 통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를 주제로, 교육목회원 부서로는 올해 가장 먼저 개학하였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반별로 홀리 저금통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간단한 식사를 나눈 후에는 풍선팡팡놀이와 신체놀이를 하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늘씨앗부는 15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아들이 모이는 부서로, 손이 많이 가는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이므로 주로 보호자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집중력이 짧고 활동량이 많은 영아들을 위해 교사들도 섬세한 애정으로 꼼꼼하게 돌보고 있다.

함줄함줄

신임안수집사 환영회 및 상반기 임시총회

안수집사회에서는 29주년 교회 창립주일에 임직한 신임안수집사(25기)를 환영하는 환영회를 7월 9일 오후 3시에 지하식당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신임 권사들도 초청하였다. 4부의 순서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1부는 예배 시간으로 신임안수집사, 신임권사들이 특송을 준비했고 2부 시간에는 용혜원 목사를 초청해 '꿈과 사랑으로 현실을 만들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부는 장승수회장의 환영사와 홍근용 은퇴장로가 중직자로서의 자세와 교회 봉사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어서 손영익 안수집사와 신형섭 안수집사의 간증이 있었다. 해외 선교사역과 사랑나무, 호스피스 봉사 등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받았다.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갖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최우철 안수집사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월~금)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7.24~8.25에는 여름휴가 기간이어서 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알립니다

고등부 “일일 레몬 카페”



고등부에서 “일일 레몬 카페”를 엽니다. 2017년 고등부에서 떠나는 특별한 수련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부에서는 “세상에 움씨를 뿌리다”라는 주제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마을에서 “세움 수련회”라는 국내선교회를 합니다. 마을 집집마다 녹슨 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동네 아이들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열며 진정한 섬김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따로 회비를 걷지 않고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세움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섬김의 자리가 더욱 풍성하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일 레몬 카페”를 엽니다. 7월 9일 주일부터 학생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레몬청을 정성스레 직접 만들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류주영 전도사 010-3368-1742)

일시 : 2017년 7월 16일 (주일) 2부, 3부 예배 후

장소 : 김마리아 회관 1층 로비 및 야외 박스

★레모네이드 한 잔에 5,000원입니다.

알립니다

1. 2017 향존직 선거를 위한 피택 후보자 명단 확인

기간 : 7/16, 23(주일)

* 교회 1층 복도에서 확인 바랍니다.

2. Kingdom Vision English Camp

기간 : 7/31 - 8/11 (월-금)

접수 : 7/16 (1층 로비에서)

대상 : 초등 3-6학년 / 인원: 55명

회비 : 40만원

문의 : 김경배 전도사 (010.2782.2585)

3. 사랑나무에서 악기를 기증 받습니다

사랑나무(자폐·지적장애) 학생들의 재능 발달을 위해 음악적 달란트를 가진 분들의 재능 기부 및 악기(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드럼 등)를 기증 받습니다.

문의 : 사랑나무 부장 탁준한 안수집사 (010.5389.2594)

4. 베트남 청소년 초청 수련회 홈스테이 모집

기간 : 7/28(금) 오후 5:00 - 7/29(토) 오전 9:00

대상 : 선교사의 마음으로 베트남 청소년에게 한국가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정

참가자 :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 인솔자 2명

문의 : 김용규 안수집사 (010.2034.7912)